

광주은행 인수 7곳 참여

입찰 의향서 접수 마감...내달 20일 예비입찰

광주은행 인수전에 광주상공회의소(이하 광주상의) 등 7곳이 참여했다.

26일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입찰참가의향서(LOI) 접수를 마감한 결과, 광주은행 입찰에는 ▲광주상의를 주축으로 한 광주은행 출자자협의회 ▲전북은행 ▲우리금융컨소시엄 ▲대구은행 ▲중국 공상은행 ▲칼라일그룹 ▲매쿼리 금융그룹 등 7개의 잠재투자자가 매각주관사인 대우증권에 의향서를 제출했다. 우리금융지주 인수전에는 11곳, 경남은행에는 5곳이 참여했다.

광주·전남지역 항로 기업인들로 구성된 광주은행 출자자협의회는 이날 정오에 의향서를 냈고, 중국 공상은행은 오후 3시께, 독자생존을 내세우는 우리금융컨소시엄은 오후 4시께 제출했다. 대구은행은 광주은행과 경남은행 두 곳 모두에 입찰 참가 의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은행은 전날인 25일 오후 의향서를 제

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미국계 사모펀드인 칼라일 그룹과 또 다른 사모펀드 한 곳도 광주은행 인수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제출자의 이름이 공개될 경우 비밀유지약정(CA) 위반 등 법적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며 “상장회사의 경우 공시 부담·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접수된 의향서는 매각 대상에 대한 관심이 있음을 알리는 절차로 희망하는 매입 대상(우리금융,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과 매입 목적만 밝힌 것이다.

정확히 몇 퍼센트의 지분을 인수할 것인지, 인수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등의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달 예비입찰 단계에서 내놓게 된다.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는 의향서를 제출한 인수희망자들이 광주은행 등 해당

■광주은행 매각 일정

10월 30일	매각공고
11월 12~26일	입찰참가의향서 접수
12월 17~20일	예비제안서 접수
12월 말경	최종입찰대상 선정
	예비실사
11년 1월 중	최종제안서 접수
11년 3월 중	우선협상대상 선정
	상세실사 및 협상 진행
11년 상반기	계약체결
	금융위 승인

은행을 대상으로 예비실사를 실시, 다음달 17~20일 예비입찰을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어 예비입찰 참가자를 대상으로 최종입찰대상자를 연말까지 선정하고, 정밀실사와 최종 입찰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추위 잊은 미나리 수확

26일 오후 나주시 노안면의 한 미나리밭에서 농부들이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나리를 수확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김관진 前 합참의장 신임 국방장관 내정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교체가 결정된 김태영 국방장관 후임에 김관진 전 합참의장을 내정했다.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안보 위기상황에서 냉철한 판단으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국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군 전체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소신, 감직함으로 군 안팎의 두루 신망을 받고 있는 김 후보자가 국방부 장관으로 적임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북 전주 출신인 김 장관 후보자는 올해 61세로 육사(28기)를 졸업, 3군사령관과 합참 작전본부장, 합참의장, 2군단장을 역임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연평도 북방서 또 수차례 포성

합참 “北 내륙서 실시된 통상적 훈련인 듯”

26일 12시20분부터 오후 3시33분까지 연평도 북방 북한 내륙지역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포성이 6차례 정도 들렸으나 우리측 지역으로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12시20분부터 오후 3시 조금 넘는 시간까지 북한 개머리 방향 내륙지역에서 간헐적으로 수 차례 포성이 청취됐다”며 “우리측 지역이나 해상으로는 떨어지지 않는 듯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안지역이 아닌 내륙지역에서 실시한 일반적인 사격훈련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 내륙 개머리 지역에서 6차례에 걸쳐 포성이 들렸다”며 “북한이 모두 20여발을 발사한 것

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평소에도 내륙지역에서 포성이 들린다”며 “북한군이 자체 훈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발사한 포는 우리측 지역으로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군 당국은 포성이 들림에 따라 주요 도로를 차단하고 병력을 배치했으며, 연평도 발전소 직원이나 주민들을 긴급 대피토록 했다.

포성 소리에 놀라 해안가나 대피소

로 피신했던 발전소 직원과 주민 일부는 이번 포성이 북한 내부에서 자체 훈련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군 당국의 발표가 나오자 15분 만에 원래의 위치로 돌아갔다.

그러나 주민과 발전소 직원 등은 북한의 추가 공격이 이어지면 발전소 등 주요 시설물이 피격 대상이 될 것이라며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다.

발전소의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육지로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만약 북한이 다시 공격한다면 발전소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신규 원전 후보지 고흥·해남 등 4곳 선정

내년 2월까지 유치 신청서...평가 거쳐 2곳 확정

한국수력원자력은 26일 신규 원자력 발전소 부지 후보지로 고흥·해남 등 4곳을 선정하고, 이들 지역에 유치 신청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원전 유치를 놓고 찬·반 의견이 명확하게 갈릴 게 불 보듯 뻔한 상황이어서 주민간 갈등과 대립을 해소할만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수원은 이날 “지난해 신규 원전 입지 확보를 위한 정책수립 용역을 수행해 발굴한 원전 입지 가능 지역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거쳐 유치전에 참여 가능성이 있는 고흥과 해남, 강원 삼척, 경북 영덕 등 4곳을 후

보지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해당 지역이 내년 2월28일까지 지방의회의 동의서를 첨부한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면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안전성·환경성·주민 수용성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내년 2분기 중 신규 원전 부지 2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고흥군과 해남군은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자칫 극렬한 주민간 갈등이 빚어질 민감한 이슈라는 점에서 “주민 뜻에 따를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을 내세우고 있다.

박병종 고흥군수는 “후보지로 선정됐지만 유치신청서 제출 여부는 주민들의 정확한 뜻을 파악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환 해남군수도 “주민 의견이 최우선 고려 사항으로, 주민 갈등이 빚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처리하겠다”고 언급했다.

고흥과 해남 모두 최근 일부 주민들이 원자력발전소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다. 해남의 경우 26일 40여명의 주민들이 부산시 기장군 고리원전을 방문하는 등 원전 유치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 환경단체를 비롯한 다른 한쪽에서는 반대 목소리도 거세 갈등이 우려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우암학원 창학 60주년
 출발 2010, 제2의 창학원년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당신만을 위한 비즈니스 호텔
 *런치 스페셜 - 해물지리탕, 추어탕, 목개장
 *특선해물뷔페 - 35,000
 *객실: 전 객실 50% 할인
 *웨딩홀: 웨딩패키지 할인 숙박권 증정
 *돌잔치: 숙박권증정 및 패키지 할인
 칠순연·각종 세미나 (대·중·소 연회장 환바)
이당크관광호텔
 예약문의 ☎(062) 227-8500
 www.hiddinkhotel.com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56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정시 모집 12월 17일~22일
 [기]군 원서접수
 보육교사교육원 12월 1일~1월7일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since 1982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매우 잘 들립니다. *안보입니다. *가격이 맘에 듭니다.

국제보청기를 착용하면 매우 잘 들립니다.
 국제보청기는 착용 후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국제보청기의 가격은 저렴하여 고객님의 만족을 드립니다.

국제보청기
 www.kjhr.com

본 점 (062) 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
 총장점 (062) 227-9970

순천점 (061) 752-9940
 목포점 (061) 262-9200
 익산점 (063) 851-2422